

濟州島 俗談에 드러난
島民意識 考究

A Research on Proverbs in Cheju-do Reflecting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1985年 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高 順 國

濟州島 俗談에 드러난
島民意識 考究

指導教授 李 鉉 洙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1985年 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高 順 國

高順國의 教育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 함.

審查委員長 _____ ①

審查委員 _____ ①

審查委員 _____ ①

1985年 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A B S T R A C T

I. 序 論	1
II. 俗談斗 島民意識	2
1. 素材로 本 島民意識	4
1) 人 物	2) 動 物
3) 用 具	4) 自 然
5) 飲 食	6) 人 體
2. 主題로 本 島民意識	17
1) 忍苦・不屈意識	2) 勤勉・儉素意識
3) 實利意識	4) 排他・警戒意識
5) 協同・和合意識	6) 守分意識
7) 慎言意識	8) 自立意識
9) 運命意識	
III. 結 論	26
* 參考文獻	
* 附 錄	

A B S T R A C T

A Research on Proverbs in Cheju-do Reflecting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By Ko Soon-guk

Advisor: Prof. Lee Hyun-so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resent thesis aims to show the features of proverbs in Cheju-do and to draw the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from them. It depends on the analysis of materials and the contents of 361 proverbs from Cheju Islanders. The materials of these proverbs are the elements consisting of the contents, and are the things or the structure itself organizing Cheju Islanders' living environment as well. By classifying three spheres of natural, histor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we can see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the information of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Cheju Islanders' living in an isolated island off the mainland have cultivated wasteland, confronting such natural circumstances as barren soil, lots of wind and rain, and a lot of rocks. In addition,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women in Cheju-do, which made it difficult to cultivate the wasteland and engage in farming. However, if Cheju Islanders had not overcome such conditions, they could not survive now.

For these reasons the women had to take the initiative in making a living with endurance and a will of iron. Nevertheless, the Cheju Islanders were destined never to escape from such man-made historical bonds as the prolonged attack of Japanese pirates, the long-continued pillage of Mongolian and of Korean public servants. In spite of many difficulties, they could not help living by their own ways and making own ways early in life so that they could survive-and that's what made the nuclear family appear in Cheju-do.

The wisdom of life which they have realized reflects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expressed in the proverbs, for they had to survive in the midst of nature's threat and human tyranny. The consciousness of endurance and fortitude, diligence, interests, exclusion and precaution, cooperation and harmony, doing one's duty, care in speaking, self-reliance, and destiny is the wisdom and the secret of life which makes it possible to continue their life vigorously despite many difficulties.

I . 序 論

俗談이란 巷間에 널리 分布된 口碑的인 箴言으로서 社會的 環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大衆의 智慧와 經驗을 통해서 이루어진 精神的 所産으로 優秀한 文學이며, 詩歌이며, 處世訓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民族이나 國民의 性情과 氣質이 잘 反映되어 있으며, 道德과 信仰까지도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담은 庶民의 心志性情이 응결된 그 겨레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¹⁾ 또한 속담은 한 集團의 意識構造 위에서 集團의 生活經驗과 智慧를 比喩의 형식으로 集約하여 表現한 短句로 口傳過程에서 大衆에 의하여 韻律化된 것이다.²⁾ 우리는 時間과 空間을 초월한 哲理를 지닌 貴重한 文化遺産인 속담을 잘 보관하고 다듬어 우리 子孫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本島는 불우한 立地性과 歷史性을 背景으로 生計維持라는 절실한 狀況下에서 거의가 生業에 얽매여 忍苦의 生活을 감수하지 않고는 生存할 수조차 없었다. 궁핍과 忍從 속에서 의연히 버티어 온 島民의 意識構造는 여건에 대한 順應일 수도 있고, 挑戰 내지는 抗拒일 수도 있다. 이런 過程을 통해서 얻어지는 生活體驗의 表現은 大衆의 것으로 형성되어 어떤 形態로 전과력을 갖고 傳承되게 마련이니, 그 代表的인 것이 俗談이다. 또한 이들은 民衆의 產物로서 民衆이 共感하고 愛用할 때 그 생명이 있는 바³⁾ 本島 俗談의 경우에 있어서도 民衆과 더불어 생명을 같이하는 非專門의 口承文藝로서 이 地域民의 意識을 反映하고 있다. 여기에 反映된 特性은 그대로 本島 俗談의 本領일 수 있으므로 그 源泉을 찾아 正체를 究明해 내는 일은 先人의 呼吸이 서린 얼의 호롱불을 되밝혀 내는 作業이라는데서 그 意義는 크다고 하겠다.

本稿는 바로 이러한 作業으로 濟州島 俗談에 나타난 특유의 風土性과 연관된 島民의 意識을 抽出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筆者가 直接 수집한 650여 本島 通用의 俗談을 李基文編⁴⁾ 「俗談辭典」과 하나하나 對備시켜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 선별 基準은 위 辭典에서 그 수록 여부를 중심으로 ① 수록돼 있지 않은 本島 通用의 俗談으로 筆者가 수집한 것. ② 本島 俗談으로 明示되어 있거나 本島 方言으로 併記된 것. ③ 內容은 같으나 表現形態나 素材가 달리 드러난 것 등

1) 金思燁, 「俗談論」, (서울: 大建出版社, 1953), p.128.
2) 姜在哲, 「韓國俗談의 根源說話」, (서울: 自鹿出版社, 1980), p.20.
3) 張德順, 「口碑文學概說」, (서울: 一潮閣, 1971), p.189.
4) 李基文, 「俗談辭典」, (서울: 民衆書館, 1962).

은 일단 資料로 選擇하였다. 그리고 나니 361 篇으로 줄어들었다. 비록 수에 있어서 적은감이 없지 않지만 分析 吟味해 보는 동안 이들만으로도 本 島民의 意識을 抽出해 낼 수 있었다. 361 篇의 속담을 기본 資料로 해서 이들을 素材와 主題別로 分類하고 드러난 島民意識을 考察해 보았다.

앞으로 계속 수집되는 資料의 補強에 따라서 새로운 意識이 抽出될 수 있겠으나, 韓國 俗談研究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所信과 더불어 濟州島學의 한 分野를 開拓한다는 一 抹의 矜持를 가져 본다.

II . 俗談과 島民意識

近來 住民意識에 대한 論義가 여러 側面에서 꽤 活潑하다. 住民意識은 行動樣式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바탕은 본시 不可視的 心意現象이므로 이를 밝히는 作業 自體가 어렵다. 한 겨레이든 한 地域이든, 住民意識의 研究는 여러 觀點에서의 接近과 그 總和가 이루어져야 대체적인 樣態를 抽出할 수 있겠는데, 다른 겨레나 다른 地域과의 對比研究까지 걸들이지 않는다면 그 客觀的 妥當性을 지니기 어렵다. 더구나 韓國人의 意識構造는 韓國과 韓國人에 대한 各 分野의 時空的 조사 연구가 상당 水準 이루어진 다음, 導出된 바의 集約的 結論으로 探索될 性質의 것이며 濟州島 같은 한 地域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地域民의 意識究明을 위해서도 역시 歷史學·社會學·心理學·人類學 등 여러 學問과 產業經濟와 生産活動 및 自然科學 등 모든 분야가 총 동원되어야 한다. 이 모든 學問의 結論 그대로가 住民意識 그 자체일 수는 勿論 없겠지만 直·間接의 究明資料로서 이바지 할 것이다.

濟州人의 意識研究는 濟州研究의 總和일 수 있다. 各 分野의 濟州研究는 地域的 偏在와 好奇的인 殊異로 말미암아 光復 후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濟州島가 濟州道로 승격된지 40 年이 된 오늘에도 아직 여러 分野의 研究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므로 本 研究는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濟州人의 意識究明은 韓國人의 意識研究가 그 바탕에 깔려야 하며, 그 터전 위에 濟州人의 意識을 論議해야 하는 게 일차적으로 타당한 方法이다. 우리는 지금 韓國人의 意識이 무엇이나고 물을 때 한 마디로 잘라 말 할 수 없으며, 濟州民의 意識究明 역시 難題일 수밖에 없다.

住民意識은 社會的 集團의 性格과 밀착된다고 할 때 그 研究를 大別하면 文化類型에 관한 研究, 國民性 研究, 社會的 性格 및 基本的 個性에 관한 研究로 나눌 수 있다. 韓國文化 내지 濟州文化의 類型化 作業마저 이룩되지 못한 時點이지마는 住民意識을 밝히는 일은 自

己 同一性を 確認하는 작업이요, 自我가 自我의 主人公으로서 自己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 곧 主體性を 定立하는 작업일 수 있다는 점에서 緊要하다. 남과 다른 自我, 남들과 判別되는 集團의 性格이 곧 住民意識의 要諦일 것이다.

濟州의 島民意識을 밝힐 때 島民의 存在樣式 곧 生存樣式이 淸명될 것이며, 중국에는 自己 實現的 信念이 構築되면서 濟州人의 潛在的 能力이 개발될 줄 안다. 그리고, 韓國人의 意識이 우선 定立되고 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濟州人의 그것을 밝히는 演繹的 方法만이 妥當한 게 아니라, 오히려 韓國의 各 地域의 住民意識을 먼저 淸명하고 그 集sum으로써 韓國人 전반의 意識을 歸納하는 方法 또한 바람직하다.

무릇 俗談은 住民意識을 그대로 드러낸다. 俗談은 庶民的이며 地域的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神話·傳說·民譚 등에 비해서 俗談은 유달리 庶民과 밀착되어 있으며, 俗談은 듣는 자에게 敎訓과 感銘과 刺戟과 警告를 주는⁵⁾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순간 순간 確認하며 고무한다는 점에서 그 地域 나름의 庶民生活 일체의 實相을 보여주면서 住民意識을 集約적으로 表現한다.

俗談은 地域마다의 庶民生活을 그대로 축약하며 한 地域의 特性은 그 지역 속담의 特性으로 구현된다. 濟州島 俗談의 獨特性은 곧 濟州島의 特性이다. 俗談은 구조가 단순하여 民衆은 누구나 자의에 의하여 參與할 수 있기 때문에 庶民意識을 더욱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낸다. 濟州島 俗談에는 濟州島의 風土·歷史·產業·宗教·文化 등 濟州島의 모든 것과 島民의 生活樣式 및 思考方式 등이 集約되어 나타난다. 濟州島의 俗談에는 濟州島民의 생활상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 內容의 分析으로 島民의 意識을 究明할 수 있다.

俗談만으로써 濟州島의 島民意識이 온통 밝혀질 수야 없겠지만, 이런 作業이 거듭 쌓여져 나아갈 때 그 전모가 드러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自我가 自我의 主人公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狀況 속에서 인식되는 일종의 가치, 곧 主體性도 確認될 줄 안다. 住民意識이나 民族性 등에는 肯定的인 側面이 있는 한편 否定的 側面이 共存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肯定的 側面에 초점을 맞추어 分析함으로써 濟州島 俗談의 實相을 살펴 볼까 한다. 民族性과 住民性을 論議할 때 否定的 側面을 擴大하는 傾向은 타당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여기에서는 가끔씩 肯定的인 側面을 中心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5) ·禹盛永, “俗談을 통해 본 韓國人의 敎育觀”. 東國大學校 碩士論文, 1981, p.3.
·崔根學, 「韓國俗談辭典」. (서울:文學出版公社, 1985), pp.8 ~ 10.

1. 素材로 본 島民意識

俗談도 文學藝術의 하나로서⁶⁾ 그 효용성이 평가 된다. 기록 예술에 있어서의 素材나 題材의 選擇은 作家의 意圖를 具現하기 위한 不可缺의 要素이다. 허구성을 생명으로 하는 創作에 있어서도 실제 生活周邊에서 素材를 擇함으로써 讀者에게 親近感을 주는 것이 상례이다. 生活 體驗을 토대로 산출된 俗談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生活과 밀착될 수 없는 素材는 무시되고 있다. 비록 그 俗談이 주는 의미 기능은 觀念的일 수 있으나 그 主要素材는 生活과 직결된 具象物이 절대 다수다. 素材는 俗談에 있어서 主題를 만드는 要素이다. 그 關聯性은 날과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⁷⁾

俗談의 素材가 기계적인 공식이나 原則처럼 主題를 左右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素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時代나 環境의 影響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島 俗談의 여러 素材들을 분석 종합하는 일은 濟州島民의 意識 傾向을 抽出하는 적합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本島 俗談에 있어서는 더더욱 環境的 風土性이 生活面과 密接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에 등장하는 素材들을 蒐습하면 民俗資料의 목록 같은 古風이 풍긴다. 이것은 그대로 本島의 전통적 의식에 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이므로 素材分析에 따른 島民意識의 抽出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음의 分類들은 俗談에 사용된 素材가 거의 名詞를 核心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人物 動物·用具·自然·飲食·人體 등에 관한 具象名詞 361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表 1〉 素材의 分析

區分 \ 素材別	人 物	動 物	用 具	自 然	飲 食	人 體
頻 度	97	85	51	49	40	39
比 率 (%)	26.9	23.5	14.1	13.6	11.0	10.1

本島 俗談의 중심 素材는 生活의 역동성에 기인한 生業手段과 섬(島)이라는 風土性과의 複合的인 要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俗談의 素材分析을 통하여 濟州島民의 生活에서 연관되어지는 意識을 살피고자 한다.

6) 徐石演, “俗談學 研究”. 朴仁守 博士華甲紀念論叢, 1974, pp.373 ~ 382.

7) 金善豊, “諺語素材의 分析”. 韓國民俗學研究 第一集 韓國民俗學研究會, 1974, p.4

1) 人 物

一般的으로 俗談에 가장 많은 頻度를 나타내는 것이 動物이지만⁸⁾ 本島 俗談의 경우를 보면 動物보다 人物에 관한 素材가 훨씬 우세하다. 그것은 本島가 섬이라는 地理的 條件으로 인하여 서식하고 있는 動物의 種類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動物을 통한 迂回的 表現보다는 人物을 素材로 한 直接的인 表現으로 言衆이 빠른 理解를 얻고 處世의 教訓을 삼고자한 데 있다고 본다.

〈表 2〉 人物의 分類

性 別	素 材 別 稱 號	累 計	比 率 %
男	비슬아치(3) 아버지(2) 할아버지(2) 계부(2) 남자(1) 아저씨(1)	13	13.4
女	각시(7) 첩(6) 어머니(5) 처녀(5) 딸(4) 장모(3) 며느리(3) 과부(3) 여자(2) 할머니(1) 시어머니(1) 해녀(1) 누이(1) 시누이(1) 계모(1)	44	45.4
男女通稱	아기(13) 도둑(6) 자손(5) 사돈(3) 양반(3) 거지(2) 부자(2) 부모(2) 벗(1) 어른(1) 무당(1) 조카(1)	40	41.2

本島 俗談의 경우 人物에 관한 素材는 〈表2〉에서와 같이 女子에 관한 素材가 全體의 45.4%로 단연 우세하다. 男性에 비해 女性에 관한 素材가 많은 것은 三多 中の 女多라는 말이 적중된 결과이다.

- 여^ㅅ즈^ㅅ로 나느니 쉼^ㅅ로 나주.
(여자로 태어날 바에는 차라리 소로 태어났으면)
- 미운놈 보^ㅅ컨 딸 하^ㅅ영 나라.
(미운놈 보려거든 딸을 많이 낳으라)
- 너미 골리당 눈 까진 각^ㅅ시^ㅅ 한다.
(너무 고르다가는 눈 먼 아내를 얻는다)
- 미운 마^ㅅ누^ㅅ라 *남죽에 니 죽인다.
(미운 아내^ㅅ는 주걱에서 이 죽인다)

8) 柳寅昶, “俗談에 나타난 韓國人의 生活觀”. 東國大學校 碩士論文, 1981, p.5.

* 남죽: 나무로 만든 주걱.

女子로 태어날 바에는 매일 勞役으로 시달리는 소(牛)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는 것과는 먼 각시, 미운 아내 등의 稱號를 보면 女性을 천시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本島는 儒敎思想이 지배하는 社會였으나 女子라는 存在가 결코 輕視될 수 만은 없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本島 俗談 自體에 담긴 俗談의 內容도 男尊女卑의 儒敎的 思想이 절대적일 수 없는, 오히려 男子를 능가하는 勤實하고 알뜰한 삶의 주역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李乙煥과 金善豊은 그의 研究論文에서 韓國에는 女子의 가치를 중시한 俗談은 하나도 없다고⁹⁾ 論하고 있으나 本島 女性俗談에는 女子의 가치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 홀애빈 웨문에 웨문 도질귀, 홀어명은 정동화리가 아홉.
(홀아버지는 외문에 외문 돌쩌귀, 홀어머니는 청동으로 만든 화로가 아홉이나 된다)
- 노 허끈 하르방 아장 울곡, 썰 허끈 할망은 아장 푼다.
(새끼 홀어 놓은 할아버지는 앉아서 울고, 실 홀어 놓은 할머니는 앉아서 푼다)
- 딸 나뒹 양재 안 들곡, *피 나뒹 *장예 안 비짚다.
(딸을 두고 양자 안 데리고, 피를 두고 다른 곡식 꾸어오지 않는다)
- 비바린 늙으민 2래착 정 산드레 올른다.
(처녀는 늙으면 땃들을 짚어지고 산으로 오른다.)
- 골은 품이민 홀어명 집 머슴 산다.
(같은 값이면 홀어머니 집에서 머슴살이 한다)

濟州島는 土質上 벼농사보다 밭농사가 主가 되며 이것도 소수의 勞動으로 이루어지는 小規模의 農業이다. 土地는 대부분 男子들이 所有하고 농사에서 男子들은 쟁기로 밭을 가는 힘든 일만 담당하며 女子들은 김매기, 씨뿌리기 보리베기 등 과정부터 收穫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積極的으로 農事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女子인 것이다. 심하게 말하여 濟州島에서는 男子가 없이 女子 혼자서 農事지을 수 있어도 女子없이 農事를 지을 수 없다고 하겠다.

農事 以外에도 돼지를 기르는 것이며 식사를 準備하고 설것이 하며 빨래하는 것 등이 모두 女子의 일이다. 女子가 바쁠 경우 男子들이 子女를 돌보아 주기 때문에 本島에서는 男子

9) · 李乙煥, 韓國女性俗談에 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3, pp.109 ~ 110.

· 金善豊,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俗學會, 1972, p.14.

* 장예 : 꾸어 들여 오는 곡식

* 피 : 오곡중의 하나

들이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아이나 보고 있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家事를 女子가 처리 운영하고 男子는 家事에서 除外되는 편이었다. 특히 女子가 장사를 하여 큰 수입원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라도 女子들이 家庭의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本島 女性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위 俗談 가운데 홀어머니, 할머니, 딸, 처녀 등은 모두 生活力이 강하고 勤勉과 自立의 存在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表2>를 보면 女性을 素材로한 俗談 가운데 그 稱號를 보면 각시와 첩에 관한 것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沿岸 居住 女性들은 陸地 女子들에 비해 內訓女四書類를 接할 기회가 없으며 男女가 함께 장시간 野外 勞役に 종사하면서 빈번한 男女의 접촉에서 오는 內外觀念의 희박성과¹⁰⁾ 女多로 인하여 僧과 거지도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등과¹¹⁾ 연관성을 갖는데서 온 결과라 하겠다. 그 결과 적실과 첩, 첩과 첩,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야기되었으나 儒敎思想이 근간이 되었던 社會라 시어머니의 권위는 더욱 向上되어 며느리와 첩을 가혹하게 지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실과 첩, 첩과 첩 사이의 不和는 서로가 自活하지 않으면 生存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自立意識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 하루 자도 한 각시
(하루 동침하여도 한 각시)
- 각시 웃인 처개 집 가나 마나.
(아내가 없는 처가 집은 갈 필요가 없다.)
- *살챇보리 거죽차 먹은 덜 씨앗이야 혼 집에 살리.
(살챇보리 껍질 채 먹은 들 첩과는 한 집에 살지 않는다.)
- 통부체도 씨앗이엔 혼민 돌아진다.
(통부처도 첩이라고 하면 등을 돌린다.)
- 씨어명 솔 덕 위에 앉아도 호령한다.
(시어머니는 아궁이 위에 앉아도 호령한다.)
- 승이 어시민 매누리 다리가 희영.
(흥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다고 한다.)

10) 金思燁, 前掲書. p.144.

11) 李元鎭, 「耽羅志」.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214.

<女多男少 僧皆作家寺傍以畜妻子雖行穀者 並畜妻妾>

* 살챇보리: 껍질을 벗기지 않는 보리

이와 같이 處女는 한 번의 同寢 事實이 있어도 시집을 갈 수 없다는 당시의 社會的 觀念은 한 번 실수로 인하여 一生을 첩으로 살아야 한다는 意識을 고착시키고 만다. 그리하여 處女로 시집 한 번 못 가고 첩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경우가 왕왕있었다.

男女의 구별이 불분명한 男女通稱의 俗談에서 그 素材의 頻度를 보면 아기와 도둑에 관한 것이 도합 20개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아기에 관한 俗談이 많은 이유로는 女多라는 本島 특유의 여건과 婦人으로부터의 支配에서 벗어나는 方便으로서¹²⁾ 一夫多妻는 결국 많은 아이를 出産하게 했다. 또한 家門의 대를 이어갈 男兒를 낳지 못하면 더 많은 첩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렇듯 아이들의 수효는 急增하여 심한 경우에는 한 집의 子女 수가 한 섬(15명)에 달했다는¹³⁾ 이야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口傳되고 있다.

- 애기 한 *게와시, 몰 한 장재.
(아기가 많으면 거지요, 말(馬)이 많으면 長者다)
- 뻔 애길 지드리멍, 헨 용실 지드리리.
(이미 임신해 있는 아기를 기다려 무엇하며 지은 농사를 기다려 무엇 하리)
- 아이 죽은 디 식개 안 한다.
(아이는 죽으면 제사를 하지 않는다)
- 애기 날 뻔 헨 울이 새롭다.
(아기 낳을 때는 실오라기도 힘이 된다)
- 곡석광 애긴 구저도 널려볼지 못 한다.
(곡식과 아기는 더러워도 던져버리지 못 한다)
- 도둑은 들민 헨 짐.
(도둑이 집에 들면 한 짐을 짊어지고 간다)
- 도둑 놈 하나에 열이라도 못 당한다.
(도둑 놈 한 명에 열 명이라도 못 당한다)

아기가 많으면 食糧이 많이 소비되어 거지가 되고 말(馬)이 많으면 부족한 人力을 충당해 주므로 長者가 된다는 俗談에서 感知되듯이 人口의 增加는 島民의 生計에 막대한 影響을 주었다. 더구나 척박한 土地에다가 食糧마저 부족하여 生活은 더욱 궁핍했고 굶주림에 貴중한 人命을 잃기도 했다. 生活이 궁핍해 지면서 거지가 등장하며 빈번한 倭寢의 食糧 수탈

12) 李光奎, 「耽羅文化 第三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4. p.66.

13) 洪文昊, 濟州道 西歸市 甫木洞 居住 高校 漢文教師.

*게와시 : 거지

로 인하여 이들을 警戒하는 意識은 더욱 高調되었다.

2) 動 物

濟州 俗談에서 人物 다음으로 많은 頻度를 나타내는 素材가 動物이다. 동물은 人間의 장구한 歷史와 함께 苦樂을 같이해 오면서 부족한 人力을 보충해 주며 人間의 生計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存在였기 때문에 人間은 動物을 통해 저마다의 處世的 敎訓을 삼고자 한 데 그 이유가 있다.

〈表 3〉 動物의 分類

分 類	素 材 別 名 稱	累 計	比 率 (%)
家 畜	개(22) 소(12) 말(11) 닭(6) 돼지(5) 고양이(2) 오리(1)	59	69.4
野 生	새(4) 가마귀(4) 노루(3) 쥐(3) 꿩(2) 두더지(2)	18	21.2
魚 類	고동류(6) 멸치(1) 해삼(1)	8	9.4

위의 分類를 보면 本島에서 棲息하지 않는 動物이거나 實利와 관계 없는 家畜類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動物을 취한 俗談의 素材는 모두 85개인데 家畜이 전체의 69.4%로 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 양살나운 개 지꾸듯
(사나운 개 짓듯)
- 사냥개 언 똥 들러 먹 듯.
(사냥개 차거운 똥 삼기듯)
- 머리 검은 개 피지 말라.
(머리 검은 개 아끼지 말라)
- 손 검은 개 입도 검나.
(손 검은 개 입도 검다)
- 나드는 개가 꿩을 문다.
(부지런한 개가 꿩을 물 수 있다)

위 俗談에서 개는 財物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防犯과 生計補助를 위한 사냥의 有用性을

自力에 의한 自給自足の 生活を 해야만 했다.

野生動物로서는 가마귀, 꿩 등의 鳥類를 選擇한 素材가 10 개로 과반수 이상이다.

- 말(言) 만 * 조종새 곱이.
(말 만 조종새 같이 잘 한다)
- 배염 본 생이 허대듯.
(뺨을 본 새가 지꺼리듯)
- 생이 하나면 일뤼 잔치.
(새 한 마리면 일 주일간 잔치를 벌인다)

本 島民에게 새(鳥)라는 存在는 연민과 사랑과 동경의 대상이¹⁵⁾ 아니라 단순히 多辯과 能辯을 일삼는, 事理 分別力이 없는 存在로 여졌다. 그리고, 겨울철 絶糧期에는 새를 잡아 生計를 유지했기 때문에 새 한마리로 일 주일 동안의 生活을 이을 수 있었다는 서글픈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3) 用 具

用具는 人間이 太初에 生計를 면해 보려는 意圖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生活意欲이 남달리 강한 本 島民에 있어서의 用具는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用具를 素材로 한 俗談으로 衣食住와 有關한 것을 골라 大別해 본다.

〈表 4〉 用具의 分類

分 類	素 材 別 名 稱	累 計	比 率 (%)
衣	신발() 5 옷(4) 버선(1) 갓(1)	11	21.6
食	불(5) 자루(4) 밭(3) 향아리(3) 땃돌(2) 손가락(1) 숯(1) 체(1) 물동이(1) 상(1) 사발(1) 명석(1) 부지깁이(1) 쪽박(1) 길마(1) 논(1)	28	54.9
住	집(6) 솥(2) 지팡이(2) 문(1) 비(1)	12	23.5

15) 李英姬, “現代詩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考”, 慶熙大學校 碩士論文, 1981, pp.27 ~ 32

* 조종새 : 잘 지저귀는 새

用具에 관한 素材는 <表4>와 같이 食·住·衣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食生活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食生活에 있어서의 불(火)과 住生活에서의 신발은 食生活에서의 운반 용구인 자루, 쪽박, 향아리, 물동이와 연관되어 生計를 위한 生産活動을 노출시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불(火) 장난하민 오줌 싼다.
(불 장난을 하면 잠자리에 소변을 넣는다)
- 불 담으래 온 인성
(불 담으러 온 인생)
- 동녕 찰리도 곶이 배와사 들어 간다.
(동녕 자루도 같이 별려야 들어 간다)
- 말 좋은 집 장 고린다.
(말 만 잘하는 집에 장은 썩는다)
- 현 신착골이.
(현 신발같이)
- 허벅 진 이 *호이 허난, 팽 진 이도 호이 한다.
(물동이 짊어 진 사람이 호이 하니, 병을 짊어진 사람도 덩달아 호이 한다)

결국 用具를 통해서 感知할 수 있는 것은 당시 島民의 文化 程度와 食·住·衣의 순차에 따른 社會 發展過程과 勤勉한 島民性을 엿볼 수 있다.

4) 自 然

本 島民의 主要産業은 農耕이기에 農耕生活 週邊의 自然 또한 俗談의 素材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편이다. 이는 곧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참된 삶의 眞理를 터득하고자 함이었다.

<表 5> 自然의 分類

分 類	素 材 別 分 類	累 計	比 率 (%)
山野(風石)	돌(9) 바람(6) 산(2) 묘(2) 길(1)	18	36.7
水	물(8) 내(2) 안개(2) 비(3) 바다(2)	17	34.7
植 物	나무(6) 풀(5) 꽃(1)	12	24.5
天 體	하늘(1) 해(1)	2	4.1

* 호이 : 노역(勞役)으로 기진 맥진하여 지르는 한숨소리

自然을 素材로 한 俗談을 보면 돌(石)과 바람이 단연 우세하다. 이는 本島의 代名詞인 三多 중 風多, 石多에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돌은 地域特性에 의한 自然現象으로만 認識할 것이 아니라 島民의 生活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돌은 불편을 주는 반면, 田畚의 주위에 立體로 쌓아 마소의 출입을 막는 데 사용되었고, 用具製作 내지는 築臺를 쌓는 등 有用한 活用物로 轉用시켜 왔고 그런 過程에서 體得한 生活의 智慧는 놀라운 것이었으며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돌은 本 島民과 친화력을 가진다.

- 담 터진 발디 밭 안 들리.
(돌담 헝크러진 밭에 마소 안 들라)
- *오름에 돌광 *지세어멍은 둥글어 댕기당도 살을 때 난다.
(山에 돌과 지어미는 굴러 다니다가도 살 도리 있다.)
- 애기 어멍 삼스월에 돌이라도 니(齒) 아니 들영 못먹나.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삼스월에 돌맹이라도 이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 먹돌도 딸람시민 고망 난다.
(차돌도 뚫으노라면 구멍이 난다)

이와 같이 아무리 단단한 돌일지라도 꾸준히 인공을 가한다면 有用한 用途物로 變用시켜 活用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슬기로운 眞面目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돌은 평소 늘 대하고 있는 하잘것 없는 것이로되 모르는새 전혀 무관할 수 없는 親和力이 부여된다.

그러나, 바람은 돌과는 대조적이다. 돌은 生活에 연관된 美學的 意義를 同伴하고 있지만 바람의 경우는 無益한 것이면서 시련의 대상으로 警戒하거나 원망을 일삼고 있다.

- 초 정월 ㅼ름살에 검은 암쇄 빨 오그라 진다.
(초 정월 바람결에 검은 암소 빨이 흰다)
- 놈의 첩광 소낭기 ㅼ름은 소린 나도 살을 때 웃다.
(남의 첩과 소나무에 바람은 소리는 나도 살 도리가 없다)
- ㅼ름 불영 절 갠 날 시명, 하늘 울영 비 갠 날 시리.
(바람 불어서 파도 잔잔한 날이 있으며, 하늘이 울어서 비 갠 날 있으라)

* 오름 : 寄生火山

* 지세어멍 : 貞節을 지키면서 집안을 착실히 다스리는 지어미

- 켈당은 옷 우이 뵈름,
(친척은 옷 위 바람)

바람은 파도를 거칠게 하여 海業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동절기에는 추위를 同伴하는 加害者임과 同時에 虛勢를 부리는 存在로서 本島民에게는 그야말로 無益한 것이었다.

바람과 同率의 순위로 물(水)과 나무가 등장한다. 물은 食生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本島의 土質은 매마른 火山灰土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自然的條件은 심한 食水難을 同伴했다. 16)

- 질이 웃이난 혼 질을 건국, 물이 웃이난 혼 물을 먹나.
(길이 없으니 같은 길을 건고, 물이 없으니 같은 물을 먹는다)
- *지슬물은 털어져난 디 또 털어진다.
(낙숫물은 떨어진 곳에 또 떨어진다)

이렇듯 島民 대부분은 물을 얻기 容易한 海岸近處에 거주 하였으며 中山間 일대의 住民들은 거의 奉天水에 의존하였다. 더우기 中山間 部落의 住民들은 소나기가 올 때면 낙숫물을 받기 위해 항아리를 동원하였고 가뭄 때면 食水를 구하기 위해 海岸까지 몇십리의 길을 걸어야 했다.

나무를 人間에 비유해 온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本島民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나무는 建築의 資財로서의 가치와 火力을 조달하는 價値를 同伴했기 때문이다.

- 죽은 낭 아래 살 낭 싯저.
(죽은 나무 밑에 살 나무 있다)
- 낭귀랑 지킨 뚝박낭 지라.
(나무를 짊어지려거든 뚝박나무를 짊어지라)
- 낭은 지난 골골이 썩어도 장엔 지난 썩은 디 웃다.
(나무는 짊어지니 축축히 썩어도 곡식빚은 짊어지면 썩지 않는다)
- 내무린 낭에 눈 짚른다.
(나무란 나무에 눈 짚른다)

죽은 나무 아래도 살아날 수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한 俗談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연하게 現實을 타개해 나아가는 島民의 슬기가 드러나고 있다.

16) 任弘善, “濟州島 傳說에 드러난 島民意識研究” 崇田大學校 碩士論文, 1983, p.6.
* 지슬물 : 초가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5) 飲 食

飲食은 그 民族의 特性을 지닌다.¹⁷⁾ 그러므로 濟州島 俗談의 素材로 드러난 飲食은 島民의 食生活 特性을 엿볼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된다.

〈表 6〉 飲食의 分類

分 類	素 材 別 名 稱	累 計	比 率 (%)
動物性	고기(5) 횃간(1)	6	15.0
植物性	떡(1) 죽(6) 장(4) 열매(3) 술(2) 밥(2) 범벅(1) 조(1) 꽃감(1) 미숫가루(1) 보리(1)	29	72.5
動·植物性	음식(2) 국(1) 기름(1)	5	12.5

〈表6〉은 本 島民의 食生活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시킨 食品目錄이 되고 있다. 植物性 飲食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動物性 肉類는 一般 庶民으로서는 호강에 겨운 것이었다.

- 미친 놈 횃간 주서 먹듯.
(미친 놈 횃간 집어 삼키듯)
- 쌀 한 방울 뿜 틴물 한 동이 드르쨌다.
(쌀 한 알 보고 뜨물 한 동이 마신다)
- 한 달에 개역 시 번 즈배기 시 번 한 집 망한다.
(한 달에 미숫가루 세 번 수제비 세 번 한 집 망한다)
- 한 푼 웃인 놈이 장에 강 큰 떡 들른다.
(한 푼 없는 놈이 시장에 가서 큰 떡 든다)
- 모를 죽에 목 건다.
(메밀 죽도 목에 걸린다)

本 島民은 평소 곡식을 절약하기 위하여 죽이나 범벅 등으로 끼니를 충당해 왔다. 그리고 육류는 간혹 명절이나 제사, 잔치 때나 그 맛을 볼 정도였다. 지금도 고령자들 간에는 반찬 투정을 하면 곧 당시의 생활을 회상시키곤 한다. 고기를 보면 마치 미친 놈이 횃간을 집어 삼키듯 한다는 俗談만 보더라도 얼마나 肉類를 갈망하고 있었는 지를 짐작해 볼 수 있

17) 柳寅昶, 前揭書, p.7.

으니 이는 곧 生活의 困窮에서 오는 肉類 選好意識이었다.

6) 人 體

人間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 耳, 目, 口, 鼻, 手, 足이라 하겠는데 이런 身體의 부위가 俗談의 素材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¹⁸⁾ 이것은 人間의 性情과 美意識이 잘 反映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表 7〉 人體의 分類

分 類	素 材 別 名 稱	累 計	比 率 (%)
上 半 身	입(8) 손(6) 눈(3) 귀(2) 털(2) 이(1) 목(1)	29	78.4
下 半 身	성기(7) 발(1)	8	21.6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볼 때 身體의 부위 가운데 입(口)의 頻度가 가장 우세한 것은 生計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외의 것들도 감각 기관으로서 이는 生活에 있어서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능 발휘의 中極的 매체라는 점을 상기할 必要가 있다.

- 입 버릇 사흘이면 고치주.
(입 버릇 사흘이면 고친다)
- 목고냥이 포도청이라 주난 먹었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주니 먹었지)
- 코 고냥이 들이매 숨을 쉬주.
(코구멍이 들이라서 숨을 쉰다)
- 늪이 X은 부짓땡이로 휘간다 X는게.
(남의 X은 부지깁이로 휘젓는다고 한다)

항시 虛飢 속에서 살아 온 결과로 입(口)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입은 自制의 대상이기도 하다.

18) 金善豊, “諺語 素材의 分析”, 前揭書, p.6.

2. 主題로 본 島民意識

住民意識의 형성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 條件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自然的 環境, 둘째 歷史的 環境, 셋째 地理的 環境이다. 사람은 환경에 살아 환경의 影響을 최대한 받는다. 北方 사람들은 추위에 싸워 강인하고, 南方 사람은 온화한 데 자라서 유순한 것도 環境의 影響이다. 本島民은 獨特한 地理的 條件으로 自然과 싸워야 했고, 또한 外侵에 의한 被害도 대단했다. 高麗 元宗 14年(1273), 이 고장은 三別抄의 激戰地였고, 그 후 13世紀 前半부터 14世紀 後半에 이르는 近百年間은 蒙古의 牧馬場이었다. 또 14世紀 中엽 이래 本島 沿岸에는 倭寇의 侵入이 빈번했다¹⁹⁾ 이와 같은 狀況에서 本島民은 항시 기를 펴지 못한 채 홍수, 한발, 태풍 등 自然의 맹위에 떨면서 장구한 歷史를 지켜 왔다.

前述한 俗談의 素材에 드러난 意識이 隆合되어 本島 俗談의 內容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主題 分類에 따른 意識이 抽出은 環境 與件인 風土性과 깊은 연관성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生活 전반에 걸친 性向 檢出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本島民의 意識에 까지 接脈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俗談의 內容 分類에 임했을 때 그 한계성이 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일찌기 金思燁도 俗談의 分類 方向을 理論面과 內容面으로 區分하고 理論面에 있어서의 歷史的 구분에 의한 分類는 不可能에 가깝다고 했고²⁰⁾ 오직 內容面에 의한 地域的 구분에 따른 例示만 보였을 뿐이다. 또 徐石演은 俗談研究의 난점 중의 하나가 그 分類에 있음을 지적하고 形式上으로나 內容上으로 複雜 多樣해서 妥當한 基準이라는 것은 發見되지 않고 있으며 또 不可能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²¹⁾ 그런가 하면 李乙煥의 경우에는 特定 分野인 韓國 女性俗談에 국한시켜 그 內容 分類를 生活과 經驗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고 있고²²⁾ 金道煥은 9가지 類型으로 分類하고 있다.²³⁾

어떻든 萬人 共感의 客觀性을 띤 典型的 分類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筆者 나름대로 本島 俗談을 內容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析해 보았다.

19)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서의 不敗의 信念”. 「民俗文學研究」, 國語國文學會, 正音文化社, 1984, p.408.

20) 金思燁, 前掲書, pp.25 ~ 26.

21) 徐石演, 前掲書, pp.461 ~ 462.

22) 李乙煥, 前掲書, pp.117 ~ 120.

23) 金道煥, “韓國女性 俗談의 心理的 分析 研究”. 釜山 師大 論文集 第二輯, 1975, pp.232 ~ 244.

〈表 8〉 內 容 分 析

內容別 區分	忍 苦 不 屈	勤 勉 儉 素	實 利	排 他 警 戒	協 同 和 合	守 分	慎 言	自 立	運 命
頻 度	64	60	51	43	40	32	30	21	20
比 率(%)	17.7	16.6	14.1	11.9	11.1	8.9	8.3	5.8	5.5

1) 忍苦·不屈意識

本島 俗談의 內容을 分析해 보면 첫 순위로 드러나는 意識이 忍苦·不屈의 意識이다. 人間事에 있어서 苦樂은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지마는 유독 좋았던 것보다는 고통스러웠던 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게 마련이다. 本島가 絶海의 孤島라는 점과 척박한 땅에서의 곤궁한 生活에서 기인한 심적 갈등이 그 어느 곳보다 切迫했던 것이다. 아래 俗談을 보면 지난날 本島民이 겪었던 고통의 중량과 이를 克服했던 意志가 얼마나 줄기찻던가를 실감할 수 있다.

- 땡 졸랑 죽은 무덤은 셔도, 설랑 죽은 무덤은 웃다.
(운명이 다하여 죽은 무덤은 있어도, 서러워서 죽은 무덤은 없다)
- 죽은 낭 아래 살 낭 짓저.
(죽은 나무 밑에 살아날 나무가 있다)
- 오름에 돌광 지세어명은 둥글어 땡기당도 살을 메 난다.
(산에 돌과 지어미는 굴러다니다가도 살 도리가 난다)
- 좀녀 애긴 일툰 만에 것 맥인다.
(해녀의 아기는 일주일 만에 음식을 먹인다)
- 애기어명 삼스월에 돌이라도 니(齒) 아니 들영 못 먹나.
(산모는 삼사월에 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人間의 고통 가운데 虛飢를 참는다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산모라 할지라도 虛飢를 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해녀들은 젓이 부족하여 태어난 지 일주일 밖에 안되는 유아에게 곡물을 씹어 먹여가며 어린 생명을 구하였다는 등의 俗談은 궁핍한 生活與件으로 虛飢를 이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切迫한 狀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男子들이 많은 첩을 거느렸으나 지어미는 이에 동여됨이 없이 정절을 지키고 사노라면 언젠가는 지아버가 그 고통을 헤아려 준다는 것과 홀어머니라고 할지라

도 자식 또한 홀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으니 현실의 고통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데서 부녀자들이 한 맺힌 生活苦를 忍耐하는 意識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切迫한 生活이었지만 죽은 나무 밑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信念과 矜持로 의연히 現實을 타개해 나아가는 不屈의 信念이란 놀라운 것이었다.

2) 勤勉·儉素意識

自然을 克服하는 民族은 살고, 自然에 屈從하는 民族은 침체하는 것이다.²⁴⁾ 本島民은 地理的 狀況과 같은 역경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왔으며 장구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本島民의 勤勉과 儉素한 生活哲學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의 條件은 거저 얻어질 수 있는게 아니라 피땀 어린 勞力의 댓가 없이는 不可能했다. 利得을 위해서는 男女 구별 없이 每事에 勤勉과 儉素한 生活만이 유일한 삶의 무기였다.

- 어스름 좀 미치면 부재로 산다.
(초저녁 잠에 미치면 부자로 산다)
- 나드는 개가 핏을 문다.
(드나드는 개가 핏을 문다)
- 무쇠도 2람시민 바늘 된다.
(무쇠도 갈고 있노라면 바늘 된다)
- 나간 놈 적신 이서도 자는 놈 적신 웃다.
(나간 놈 뭇은 있어도 자는 놈 뭇은 없다)
- 봄 해에 애기 드랑 흐린 조 혼 말 벌주.
(봄의 긴긴 해에 아이를 데리고도 좁쌀 한 말은 벌 수 있다.)
- 혼 들에 개역 시 번 즈배기 시 번 혼 집 망한다.
(한 달에 미숫가루 세 번 수제비 세 번 한 집 망한다)
- 갠 지 발콥맹큼 먹었자 산다.
(개는 자기 발톱만큼 먹어도 살 수 있다)
- 생이 흐나민 일툰 잔치.
(새 한 마리면 일 주일간 잔치 벌인다)

24) 柳寅稔, 前掲書, p.15.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로 산다는 生活人의 哲學은 몇 만 마디의 論說보다도 폐부를 찌르는 삶의 眞理이다. 이와 같이 本島民은 모름지기 勞役을 달게 참으며 生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勤勉의 뼈를 깎는 고통이 同伴했기 때문에 얻은 財物은 피와 땀의 結晶이었다. 그리하여 더욱 낭비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럴만한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일 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節約生活은 곤궁을 克服하는 최선의 方策이었다. 무릇 勤勉과 儉素한 生活은 本島民의 하나의 습성이자 意識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3) 實利意識

俗談의 思想的 기반은 現實主義的 傾向이 압도적으로 현저해서 實利主義와 安全主義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는 實用的 價値觀에 입각한 俗談의 効用性을 말하는 것으로 本島 俗談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每事에 이해관계가 따른다는 것은 人間이 共通된 心理이지만 本島의 경우는 특히 현저하다.

- 다심아방 뚝배기 썬는 디랑 가곡, 원아방 낭 깨는 디랑 가지 말라.
(의붓아버지 돼지고기 자르는 데는 갈지라도 친아버지 나무 패는 데는 가지 말라)
- 새끼 한 계와시, 몰 한 장재(長者).
(아이가 많으면 거지요, 말이 많으면 長者가 된다)
- 물랑 지킨 산짓물 지곡, 낭기랑 지킨 돛박낭 지라.
(물을 짚어지려면 산짓물을 지고 나무를 짚어지려면 동백나무를 지라)
- 양 첩 혼 높 때 굶나.
(두 첩을 거느린 높 끼니를 굶는다)
- 큰 낭기 덕은 웃어도, 큰 어른 덕은 싯나.
(큰 나무의 덕은 없어도 큰 어른 덕은 있다)
- 걸랑 지킨 양반의 걸 지라.
(관계를 맺으려거든 양반과 관계를 맺으라)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 먹기 위해 의붓아버지한테는 갈지라도 나무 패는 친아버지한테는 얻어 먹을 것이 없으니 안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식량이 많이 소비 되어 결국 거지가 되고 말(馬)이 많으면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므로 부자가 된다고

25) 徐石演, 前掲書, p.432.

하였다. 이렇듯 島民의 生活에 있어서는 現實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實利意識이 反映된 本島 俗談에는 대부분 먹는 것과 處世에 관한 것이 많은데 이 것은 島民의 生計의 어려움에 기인한 生活의 哲學이라 하겠다.

4) 排他·警戒意識

本島는 한반도의 술한 文化의 影響을 받으면서도 獨特한 섬(島)의 文化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남달리 排他와 警戒意識이 강한 데도 그 이유가 있다. 흔히 排他와 警戒은 섬 住民을 特徵 짓는 意識의 하나이긴 하지만 本島는 歷史的 背景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本島는 빈번한 倭寇의 食糧 수탈과 지방 관리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 포악한 蒙古軍의 압박은 극심하였다.²⁶⁾ 특히 蒙古軍이 婦女子들을 농간함으로써 本島 女性에게는 *소중기라는 특수한 의상이 생기기까지 하였으니 이와 같은 狀況에서 排他와 警戒意識이 強化되지 않을 수 없었다.

- 미운 놈 보킨 술장사 허라.
(미운놈 보려거든 술장사 하라)
- 미운 놈 보킨 짚 하영 나라.
(미운 놈 보려거든 딸을 많이넣으라)
- 재물에 준 놈 거시지 말라.
(재물에 줄인 놈 건드리지 말라)
- 구관이앵 해골도 말곡, 신관이앵 일골도 말라.
(옛 관리라고 해서 욕하지도 말고, 새 관리라고 해서 찬양하지도 말라)
- 내 땅 가마귀는 김어도 아깝다.
(내 땅 가마귀는 김어도 아깝다)
- *목안 놈 아자난 디 풀도 아니 난다.
(山北 놈 앓았던 곳에는 풀도 안 돋는다)

위 俗談에서 미운 놈은 대부분 蒙古軍을 指稱하는 말로서 本 島民은 이들과 대하는 것을 지극히 꺼린 나머지 蒙古軍들이 농간하는 行爲가 싫어서 딸도 낳지 말고 또한 술장사도 꺼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들까지 가세하여 島民의 土地를 점유하고 가혹하게 곡물을 징수

26) 朴在煥, “人間 相互關係에 관한 濟州島民의 社會意識”, 「省谷論叢」, 省谷學術文化 材團, 1978, pp.562 ~ 563.

* 소중기: 상하의가 함께 붙은 제주도 특유의 속옷

* 목안: 山北의 제주시 일대

하게 하였기에²⁷⁾ 官吏들을 원망하면서도 묵묵히 입을 다물고 살아야만 했다. 이런 狀況에서 排他와 警戒意識은 더욱 高調된다. 여기에서 파생된 排他와 警戒意識은 近來에 들어서는 他地方은 勿論이거니와 本島의 山北과 山南의 住民間에도 조장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5) 協同·和合意識

外部勢力의 流入으로 島民社會가 각박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本島의 鄉土民들 간에는 協同과 和合하는 미덕이 풍미하였다. 이는 곧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즉 살을 에는 고통 속에서도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같이 걱정하며 돕는 마음씨와 화합하는 마음이 생겼다.

- 쇠눈이 크맹해도 의논이 크다.
(소 눈이 크다고 하여도 의논이 크다)
- 동녕 잘리도 곧지 배와사 들어간다.
(동녕 자루도 같이 별려야 들어간다)
- 놉광 숨백은 햅여도 계심은 햅지 말라.
(남과 경쟁은 하여도 모략은 하지 말라)
- 즈기 즈식은 꾀죽 주곡, 다심애긴 콩죽 맥인다.
(자기 자식에게는 팔죽을 주고, 의붓아기는 콩죽을 먹인다)
- 동넷집 식개 넘으면 사흘 불 안 쏘나.
(이웃집 제사 지나면 사흘 불 안 쏘나)

각박한 현실을 타개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웃끼리는 相互扶助하는 풍습이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웃 간에는 으레이 음식을 나누어 주어 그 음식으로 3일 동안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거지들이 들고 다니는 동녕자루도 같이 별려야 한다는 협동의식이 팽배하였다. 그리고 이웃간에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는 팔죽을 먹일지라도 의붓자식에게는 콩죽을 먹이는 너그러운 마음은 和合하는 社會를 土着化 시키게 되었다.

6) 守分意識

本島民은 實利를 추구하면서도 能力의 限界를 무시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功名心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 분수를 지키는 것을 天理로 아는 本島民의 순박한 意識이 表出이라

27)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東國大學校 碩士論文, 1976, pp.11 ~ 12.

하겠다. 또한 이것은 生活의 獨自性은 있으나 規範과 事理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意識 때문에 오랜 生活의 슬기와 試行錯誤로 얻어진 소중한 智慧이다.

- 심은 썩 놔 동 녹는 썩 심쟁한다.
(잡은 썩을 두고 나는 썩 잡으려 한다)
- 너무 꼴리당 눈 까진 각시한다.
(너무 고르다가는 눈 먼 아내를 얻는다)
- 기시런 도새기가 드라 맨 도새기 타령한다.
(그슬린 돼지가 나무에 동여맨 돼지를 비웃는다)
- 훈 훈 웃인 놈이 장에 강 큰 떡 들른다.
(한 훈 없는 놈이 시장에 가서 큰 떡을 든다)
- 게와시 떡 청 먹쟁 허민 시리 별러진다.
(거지가 떡 썩 먹으려면 시루 깨진다)
- 양 칩 훈 놈 날 뽕 정다실라.
(두 칩을 거느린 놈은 나를 보고 자제하라)
- 노리퀘기 훈 점 먹쟁 허당 저고기 열 점 잃는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가 돼지고기 열 점 잃는다)

거지가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떡을 썩 먹으려다가는 시루가 깨어지며 귀한 노루고기 한 점을 탐하다가 도리어 화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므로 분수를 지키는 길만이 현실을 바르게 사는 생활의 哲學이었다.

위의 俗談들은 앞에서 열거한 勤勉과 儉素意識의 하나로 보기 쉬운 것들이 있으나 이는 勤勉과 儉素 이전에 허세를 풍자하는 입장에서 守分意識을 擁護하는 俗談으로 보아 마땅하다.

7) 慎 言 意 識

君子의 道에 있어서 禮와 善이 아니면 듣거나 말하지 말라고 했다. 有益하고 合理的인 말은 숭상할 바이로되 無益하고 不合理的 말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眞理이다. 本島에는 유난히 眞言에 대한 意識이 팽배하였음은 아래 俗談에 드러나고 있다.

- 들은 말(言)이랑 들은 디 데껴볼곡, 본 말이랑 본 디 데껴볼라.
(들은 말은 들은 곳에 던져버리고, 본 말은 본 곳에 던져버려라)
- 숨이랑 내 쉬곡, 말랑 내 홰지 말라.
(숨은 내 쉬되 말은 건네지 말라)

- 벽벽름도 귀가 있저.
(벽도 귀가 있으니 말조심하라)
- 못할 말 학민 제 즈순에 앙알 간다.
(못할 말 하면 자기 자손이 화를 입는다)
- 귀 소문 말앙 눈 소문하라.
(귀로 들은 말은 건네지 말고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 하라)
- 말이 고마우면 새 항 사례 갔당 현 항 상 온다.
(말씨가 고마우면 새 항아리 사러 갔다가 현 항아리 사고 온다.)
- 흙생 현영 손해 웃나.
(존대말을 써서 손해 안 본다)

우연히 던진 한 마디가 官吏들의 귀에 들어가면 갖은 고초를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숨은 내설지라도 말은 절대로 건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조차 없는 벽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거짓말을 하면 그 재앙은 자손에 까지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慎言意識은 警戒意識이 낳은 產物이기도 하며 아울러 거짓말을 하면 子孫에까지 화가 미친다는 觀念은 郷土民間에 和습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8) 自 立 意 識

本島의 環境的 與件은 자기의 삶을 開拓해 나가지 않고는 他人이 대신할 수 없다는 自立의 意志를 심어갈 수밖에 없었다. 더우기 本島의 核家族制度부터가 老父母와 자식 간에도 分家하여 각기 自給自足を 위한 獨立 生計에 헌신하는 生活意識의 反映으로 그대로 自立意識의 터전을 다지게 되었다.²⁸⁾

- 갱이 보말도 집은 싣나.
(게와 고동도 집은 있다)
- 물보리 닷 되만 시민 처개살이 안한다.
(다듬지 않은 보리 다섯 되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한다)
- 종 웃인 양반 지녔대로 가라)
(종 없는 양반 자기대로 가라)

28) 玄容後, “民談을 통해 본 耽羅精神”,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 1979, pp.52 ~ 54.

- 비바린 늪으면 7래작 정 산드레 올른다.
(처녀는 시집을 못가서 늪으면 맷돌 짚어지고 산으로 오른다)
- 흘애빈 웨문에 웨문 도질귀, 흘어멍은 정동화리가 아흠.
(흘아버는 외문에 외문 들져귀, 흘어머니는 청동화로가 아흠)

陸地에 와서는 달리 本島는 농경지가 부족한데다가 土質이 척박하여 島民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生業에 종사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해 나아가기 어려운 실정이었기에 일찍부터 核家族制度가 행해졌다. 그리하여 보잘것 없는 고동도 후일을 기약하고 自立하며 사는 모습을 은연 중 인간살이에 비유한 俗談이 있는가 하면 父子 間에도 범벅에 금을 그어 놓고 먹는 것은 島民의 몰인정의 表出이 아니라 철저한 自立心을 키워주기 위한 한 方法이었다. 이러한 自立識識은 男性들보다는 女性들 間에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9) 運命意識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意識의 하나가 運命論이다. 이를테면 運命은 人爲的으로 左右할 수 없는 天意에 의한 宿命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吉凶禍福이 모두 天賦의 不可抗力的인 天理인만큼 그에 順應하는 것만이 현명한 삶의 哲學으로 여겨 왔다. 그리하여 세상 만사는 타 고나지 않고서는 형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 제주산은 악산이랑 악훈 사름 잘 된다.
(한라산은 악산이라서 악한 사람이 잘 된다)
- 구신 박접 흐는 집 안 된다.
(귀신 푸대접 하는 집 안 된다)
- 산자리 좋아사 즈순 잘 된다.
(묘자리 좋아야 자손 잘 산다)
- 정이서 쭈던 술 목안 와도 죽 쏜다.
(山南에서 죽 쭈던 술은 山北에 와도 죽 쏜다)
- 됴배 우이 올른 케기 칼 맛 안보느냐.
(도마 위에 오른 고기 칼 맛 안보느냐)
- 꽃광 나빈 흐 꼴로 간다.
(꽃과 나비는 한 꼴로 간다)
- 낭기라도 고목되민 오단 생이도 안 온다.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안온다)

이렇듯 本島의 俗談을 보면 運命에 順應하려는 島民의 겸허한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本島는 광활한 바다와 면적에 비해 높이 치솟은 한라산, 특히 빈번한 태풍과 多雨와 같은 자연 현상은 島民에게 많은 재해를 안겨 주었다. 이를테면 島民은 이와 같은 자연현상을 神의 造化로 보았으며 이와 같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神을 섬김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귀신을 푸대접 하면 禍를 자초한다는 원시 종교의식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本島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Ⅲ. 結 論

濟州 島民意識 研究의 一環으로 俗談을 擇하였다. 俗談에 드러난 素材와 內容을 分析하여 그 속에 깊이 潛在되어 있는 島民意識을 밝혀 보았다. 濟州島는 地理的 歷史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獨立된 共同體로서 固有한 俗談을 가지고 있다. 口碑文學의 特性 그 자체가 民衆과 더불어 그 삶을 같이 하면서 民衆의 숨결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만 특히 濟州島의 口碑文學, 그 중에서도 俗談은 더욱 그러하다. 거기엔 濟州島의 生活樣式과 특수한 風土의 與件下에서 살았던 島民의 意識이 投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속담에 投影되어 있는 意識을 밝히는 일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살아 온 濟州島民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島民意識을 抽出하기 위하여 361편의 俗談을 素材와 內容別로 分析하여 그 特性을 밝혔다. 속담의 素材는 內容을 이루는 要素임과 동시에 民衆의 生活環境을 구성하고 있는 事物이거나 그 構造 自體이기도 하다. 人間도 環境속의 한 個體로서 다른 個體들과 相互有機的 關聯性을 갖는다. 그러므로 人間은 生存과 더불어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反應하여 살아왔다. 이렇듯 環境과 相互作用하는 가운데 人間의 意識은 형성 토착화 되는 것이다. 濟州 島民意識 形成에 影響을 주어진 것은 自然的 環境, 歷史的 環境, 社會的 環境으로 大別해 볼 수 있다.

本島民은 絶海의 孤島에서 狹隘한 땅을 일구며 살아왔다. 척박한 火山灰土, 그리고 石多 風多, 雨多와 같은 自然環境은 쉽게 경작할 수 있는 與件이 될 수가 없었다. 또 女多라는 특이한 條件은 더욱 農事 짓기에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狀況을 克服하지 않고는 生存할 수 없었기에 忍苦와 不屈의 意志로 婦女子들이 앞장섰던 것이다. 그러나 倭寇의 연이은 약탈과

오랜 세월에 걸친 蒙古軍의 횡포, 官吏들의 수탈과 같은 人間에 의한 歷史的 桎梏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運命的인 것이었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일찍 自立하여 스스로 삶을 開拓하지 않고는 存立할 수 없었기에 일찍이 核家族制度가 發生하였다. 豪雨와 태풍과 같은 自然의 위협은 勿論이거니와 人間에 의한 蹂躪과 橫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이 터득한 삶의 슬기가 바로 俗談에서 드러나 있는 島民意識이다. 忍苦와 不屈, 勤儉, 實利, 排他와 警戒, 協同과 和合, 守分, 慎言, 自立, 運命意識은 濟州島民으로 하여금 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즐기찬 삶을 이어올 수 있게 한 生活의 要諦요 知慧인 것이다.

本稿에서 俗談을 통해서 밝힌 제주 도민의식은 餘他の 口碑文學에 나타난 島民意識의 內容과 거의 일치한다.²⁹⁾ 다만 濟州島에서 通用되고 있는 俗談을 完全히 蒐集한 후 이 研究를 추진하였다면 더 나은 結論이 나올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作業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課業으로 아쉬움을 남긴다.

29) • 金榮敦은 悲痛, 痛恨, 宿命, 忍辱, 忍苦, 節制, 儉素, 質朴, 節儉, 不敗, 自主, 自立, 自尊, 自彊意識으로 세분하고있다.

〈國語國文學 論文集(제 10 집), 東國大學校, 1983, p.58〉

• 任弘善은 限界, 挫折, 和解, 守分, 抵抗意識으로 分類하고 있다.

〈崇田大學校 碩士論文, 1983, pp.13 ~ 42〉

參 考 文 獻

1. 姜在哲, 「韓國俗談의 根源說話」. 서울: 自鹿出版社, 1980.
2. 金思燁, 「俗談論」. 서울: 大建出版社, 1953.
3. 金善豐,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俗學會, 1972.
4. 金善豐, “諺語素材의 分析.” 「韓國民俗學研究·第一輯」, 韓國民俗學研究會, 1974.
5. 金道煥, “韓國俗談의 心理學的 分析研究.” 師大論文集·第2輯, 釜山大學校, 1975.
6.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東國大學校碩士論文, 1976.
7. 金榮敦, “濟州島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研究.” 國語國文學論文集·10輯, 東國大學校出版部, 1983.
8.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서의 不敗의 信念.” 民俗文學研究, 國語國文學會·編, 正音文化社, 1984.
9. 朴在煥, “人間相互關係에 관한 濟州道民의 社會意識.” 省谷論叢, 省谷學術文化材團, 1978.
10. 徐石演, 「民俗學研究」. 朴仁守博士華甲紀念論叢, 1974. pp. 311 ~ 312.
11. 禹盛永, “俗談을 통해 본 韓國人의 教育觀.” 東國大學校碩士論文, 1981.
12. 柳演昶, “俗談에 나타난 韓國人의 生活觀.” 東國大學校碩士論文, 1981.
13. 李基文, 「俗談辭典」. 서울: 民衆書館, 1962.
14. 李光奎, 「耽羅文化·3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4.
15. 李英姬, “現代詩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 考.” 慶熙大學校碩士論文, 1981.
16. 李元鎮, 「耽羅志」.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17. 李乙煥, “韓國女性俗談에 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3.
18. 任弘宣, “濟州島 傳說에 드러난 島民意識研究.” 崇田大學校碩士論文, 1983.
19. 張德順, 「口碑文學概說」. 서울: 一潮閣, 1971.
20. 濟州島教育委員會, 「濟州道俗談資料集」. 濟州: 東洋產業社, 1975.
21. 崔根學, 「韓國俗談辭典」. 서울: 文學出版社, 1985.
22. 玄容後, “民談을 통해 본 耽羅精神.” 濟州文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79.

附 錄

本稿의 資料로 使用한 361 項의 本島 俗談을 既存文獻과 大조해 본 결과 李基文編 「俗談集」과 濟州道教育委員會에서 수집한 「濟州道 俗談 資料集」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포함 255 項이었다. 그리하여 本稿의 附錄에는 既存文獻에 없고, 筆者가 수집한 106 項만을 參考로 수록하였다.

(ㄱ)

- ① *각단 밧디 불 부뜨듯.
(푸새 밧에 불 불 듯)
- ② 갠 지 밧콧뎡큼 먹었자 산다.
(개는 자기 밧툼만큼 먹더라도 살 수 있다)
- ③ 걸랑 지킨 양반의 걸 지라.
(관계를 맺으려면 양반과 관계를 맺으라)
- ④ 게와시 떡 칭 먹쟁 흐민 시리 벌러진다.
(거지가 떡을 찌 먹으려면 시루가 깨진다)
- ⑤ ㄹ진 올히 장개 가민 전 올히 나도 한다.
(건강한 오리가 장가가면 다리 다친 오리 나도 한다)
- ⑥ 꽃광 나빈 혼 골로 간다.
(꽃과 나비는 한 골로 간다)
- ⑦ 구관이영 해 혼도 말곡, 신관이영 일 혼도 말라.
(구관이라고 해서 비난도 말고, 신관이라고 해서 찬양도 말라)
- ⑧ 구신 박접 흐는 집 안된다.
(귀신 푸대접 하는 집 안된다)
- ⑨ 귀 존 동녕바친 셔도, 코 존 동녕바친 옷다.
(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코 좋은 거지는 없다)
- ⑩ 글을 흙으로 글 백 년 살리, 활을 흙으로 활 백 년 살리.
(글을 해서 글로 백 년을 살 수 없으며, 활을 해서도 활로 백 년을 살 수 없다)

(ㄴ)

- ⑪ 나 설룬 말 놉 들영 심쌍.
(나 서러운 말 놉 들어도 등한시 한다)
- ⑫ 남즈 드딘 풀은 *유울곡, 예펜 드딘 풀은 안 유운다.
(남자가 밝은 풀은 이울고, 여자가 밝은 풀은 안 이운다)

*각단 : 초가지붕을 동여 매기 위해 새끼를 꼴 때 재료가 되는 푸새(띠)
*유운다 : 이운다.

- ⑬ 낭귀라도 고목되던 오단 생이도 안 온다.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안 온다)
- ⑭ 낭은 지난 꼴꼴이 썩어도 장뵈 지난 썩은 디 웃다.
(나무는 젊어지니 축축히 썩어도 빛은 젊어지니 썩지 않는다)
- ⑮ 너미 꼴리당 눈 까진 각시 혼다.
(너무 고르다가는 눈 먼 아내를 맞게 된다)
- ⑯ 노리궤기 혼 점 먹쟁 허당 저 고기 열 점 잃는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가 제 고기 열 점 잃는다)
- ⑰ 노 허끈 하르방 아장 울곡, 썰 허끈 할망은 아장 푼다.
(새끼 흘은 할아버지는 앉아서 울고, 실 흘은 할머니는 앉아서 푼다)
- ⑱ 놀궤기에 춤 밖은다.
(날 고기에 침 뱉는다)
- ⑲ 놀다 죽은 염송애기나, 기다 죽은 황밧길췌나.
(놀다가 죽은 염소나, 일하다 죽은 누렁이나 꼭 같다)
- ⑳ 놈광 숨백은 허여도 개심은 허지 말라.
(남과 경쟁은 하여도 시기는 하지 말라)
- ㉑ 놈의 밥사발은 높아 벤다.
(남의 밥그릇은 높아 보인다)
- ㉒ 놈의 첩광 소낭궤 트름은 소린 나도 살을 매 웃다.
(남의 첩과 소나무의 바람은 소리는 나도 살 도리가 없다)
- ㉓ 늣은 놈이 젊은 첩 허난, 불 본 나비 늣드듯 혼다.
(늣은 놈이 젊은 첩 하니, 불 본 나비 춤추듯 한다)

(ㄷ)

- ㉔ 다심아방 돛 궤기 썩는 디랑 가곡, 원아방 낭 깨는 디랑 가지 말라.
(의붓아버지 돼지고기 자르는 데는 가더라도, 친아버지 나무 패는 데는 가지 말라)
- ㉕ 담 터진 밧디 믱쉬 안 들리.
(담 형크러진 밧에 마소 안 들라)
- ㉖ 득를 췌 눈보곡, 쥘를 췌 빨 보라.
(떨 소는 눈을 보고, 쥘 소는 빨을 보라)

- ②7 도둑광 샛꽃은 무끄민 닭나.
(도둑과 푸새의 꾸러미는 묶어 놓으면 닭다)
- ②8 들로 돌 따리듯.
(들로 돌을 때리듯)
- ②9 돛배 우이 올른 궤기. 칼 맛 안 보느냐.
(도마 위에 오른 고기 칼 맛 아니 보느냐)
- ③0 될 종자 돌 막아 논다.
(되려는 종자는 들로 막아 놓는다)
- ③1 두린 아이 앞이선 입도 축 말라.
(어린 애 앞에서 입도 병긋 하지 말라)
- ③2 돛빛물에 손 덴 며누리.
(두붓물에 손 화상 입은 며누리)
- ③3 둥글린 독새긴 비애기 되곡, 손에 쥘 독새긴 고린다.
(굴린 계란은 병아리 되고, 손에 품은 계란은 고린다)
- ③4 떡 진 사람 춤 추난, 말뚱 진 사람도 같이 춘다.
(떡을 짚어진 사람 춤을 추니, 말뚱 짚어진 사람도 같이 춤을 춘다)
- ③5 딸 나뉘 양재 안 들곡, 피 나뉘 장에 안 비진다.
(딸을 두고 양자 안 데리고, 피 두고 다른 곡식 안 꾸어온다)
- ③6 동기간 웃는 디 높 웃는 건 예상이주.
(친척이 웃는데 남이 웃는 것은 당연하다)

(口)

- ③7 말이 고마우면, 새 항 사례 갔당 헌 항 상 온다.
(말이 고마우면, 새 항아리 사러 갔다가 헌 항아리 사고 온다)
- ③8 멍 쫄랑 죽은 무덤은 셔도, 설쫄 죽은 무덤은 웃다.
(목숨이 다하여 죽은 무덤은 있어도, 서러워 죽은 무덤은 없다)
- ③9 물 테우리보다 사람 테우리 2꾸기가 더 어렵다.
(말 때보다 사람 때 돌보기가 더 어렵다)

- ④⑩ 목시 집에 흰 문 든다.
(목수 집에 흰 문 단다)
- ④⑪ 못 먹나 못 먹나 호명, 거죽꺅지 다 먹나.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면서, 꺅질까지 모두 먹는다)
- ④⑫ 물도 싸민 여흘 나곡, 낭도 싸민 ㄱ루 난다.
(바닷물도 썰물이면 바다 가운데 암초가 드러나고 나무도 툽질하면 가루가 난다)
- ④⑬ 물랑 지켄 *산짓물 지곡, 낭꺅랑 지켄 돛박낭 지라.
(물을 짚어지려거든 산짓물을 지고, 나무를 짚어지려거든 동백나무를 지라)
- ④⑭ 물 보리 닷 되 만 시민, 처개살이 안 혼다.
(금방 베어낸 보리 다섯 되만 있으면, 처개살이 안 한다)
- ④⑮ 물은 흘러도 여흘은 여흘대로 싣나.
(물은 흘러도 암초는 그대로 있다)
- ④⑯ 미친 놈 횃간 주서 먹듯.
(미친 놈이 횃간 집어 삼키듯)

(ㅂ)

- ④⑰ 방에 쪼그 댓, ㄱ래 쪼그 댓.
(방아를 쪼그듯이 댓들을 돌리듯이)
- ④⑱ 벤 애길 지드러멍, 핸 용실 지드러리.
(임신한 아기를 기다려 무엇 하며, 지은 농사를 기다려 무엇 하리)
- ④⑲ 벵름 불영 절 갠 날 시멍, 하늘 울영 비 갠 날 시라.
(바람 불어서 파도 잔잔한 날 있으며, 하늘이 울어서 비 그친 날 있으랴)
- ④⑳ 북드록 골단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서니 혼다.
(날 새도록 말하다 보니, 엉뚱한 소리 한다)
- ④㉑ 부지땡인 테불만 호곡, 얼어 먹진 못 혼다.
(부자땡이는 뜨겁기만 하고, 얼어 먹지는 못한다)
- ④㉒ 불 담으래 온 인성
(불 담으러 온 인생)

* 산짓물 : 제주시 산지포의 샘물로서 수질이 좋기로 유명함.

- ⑤③ 비바리 늙으면, ㄹ래착 정 산드레 올른다.
 (처녀는 시집 못가서 늙으면, 멧돌을 짚어지고 산으로 오른다)
- ⑤④ 비바리 웃임은 산디말축 튀는 거 닳나.
 (처녀 웃음은 메뚜기 뛰는 것과 같다)

(ㅅ)

- ⑤⑤ 사농 드러사 개 ㄹ리친다.
 (사냥철 되어야 개를 훈련 시킨다)
- ⑤⑥ 산 자리 좋아사 즈순 잘 산다.
 (묘 자리가 좋아야 자손이 번창한다)
- ⑤⑦ 산짓물에 가도 궁근 *팡 츠지.
 (산짓물에 가서도 흔들리는 臺에 앉는다)
- ⑤⑧ 상뒤 가 온 비바리 설 넘은 징끼.
 (모임에 가 온 처녀 설 넘은 김치)
- ⑤⑨ 아침 어남은 중 대가리, 쨌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중의 머리를 쨌 정도로 날씨가 무덥다)
- ⑥① 생이 하나민 일뤼 잔치.
 (새 한마리면 일 주일 동안 잔치 벌인다)
- ⑥① 서귀 진 뻔인태 곶이.
 (서귀포 *뻔 인태라는 사람 같이 무뚝뚝하다)
- ⑥② 석 되 부지 하지 말라.
 (서 되의 곡물 부조 하지 말라)
- ⑥③ 쇧똥 병딩인 개도 안 먹나.
 (소의 똥은 개도 안 먹나)
- ⑥④ 어리와 가민 다심어멍 궤 푼는 디 간다.
 (어려워 가면 계모 고양이 파는 데 간다)
- ⑥⑤ 소두런 마치민 ㄹ짱흔다.
 (말 싸움은 서로 잘 잘못을 따져 보면 꼭 같다)
- ⑥⑥ 식개 집 아인 몯찐다.
 (제사 집 아이는 사납다)

*팡 : 빨래할 때 쓰는 평평한 넓은 대(臺)
 *뻔 인태 : 서귀포 하인으로 무뚝뚝하고 인색하기로 유명함.

- ⑥7 씨누이야 씨가 령 말라, 너도 가민 시녕이여.
 (시누이야 시가의 호령 말라, 너도 가면 시집이다)
- ⑥8 씨앗은 동세보단 낫다.
 (씨앗은 동서 보다는 좋다)
- ⑥9 씨어멍 솟덕에 앉아도 호령한다.
 (시어머니 아궁이 위에 앉아도 호령한다)
- ⑦0 세침뚜긴 꿀곡, 배곡, 허우대긴 그렁 죽나.
 (시침뚜기는 실속이 있어 재물을 챙기고 허풍을 떠는 이는 실속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〇)

- ⑦1 어스름 좀 미치민 부재로 산다.
 (초저녁 잠에 미치면 부자로 산다)
- ⑦2 억질 췌민 간 디 간다.
 (억지를 부리면 반드시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 ⑦3 여즈로 나느니 췌로 나주.
 (여자로 낳을 바에는 차라리 소로 낳지)
- ⑦4 오뉴월 장마에 물웨 크듯.
 (오뉴월 장마에 물외 크듯)
- ⑦5 오름에 들광 지세어멍은 동글어 땡기당도 살을 메 난다.
 (산에 들과 본처는 굴러다니다가도 살 도리가 있다)
- ⑦6 웨 낭귀 웨 돛박 울듯, 비 온 날에 웨 상재 울 듯.
 (외 나무에 외 동백 열리듯, 비 온 날에 외 상주 울듯)
- ⑦7 이녁 식개 몰으멍 놈이 식개 알카.
 (자기 체사 모르면서 남의 체사 알 리 없다)
- ⑦8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농사를 일찍 지은 이도 복이요, 늦게 지은 이도 복이다)
- ⑦9 인간의 보배 즈식이 보배, 낭귀 보배 올매가 보배.
 (인간의 보배는 자식이요, 나무의 보배는 열매다)
- ⑧0 입 버릇 사흘이민 고치주.
 (입 버릇 사흘이면 고친다)
- ⑧1 입은 알곡 목 모른 음식.
 (매우 적어 입에는 들어가도 목도 축일 수 없다)

(스)

- 82 잔 심은 풀 안트래 흰다.
(잔 잡은 팔 안으로 굽는다)
- 83 장항광 두린 아인 실려사 좋나.
(장독과 어린 아이는 차거워야 좋다)
- 84 장난 끝에 승시 난다.
(장난 끝에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 85 점광 놈이 각신 흘 때 뿐이곡, 돌아사민 해 심심혼다.
(점 치는 것과 남의 각시는 동침할 때 뿐이며, 지난 다음에는 별 것이 아니다)
- 86 정의서 쭈던 솔 목안 와도 죽 쏜다.
(山南에서 쭈던 솔 山北에 와도 죽 쏜다)
- 87 재물에 준 놈 거시지 말라.
(재물로 인해 갖은 풍파를 겪은 놈은 건드리지 말라)
- 88 제주산은 악산이랑 악훈 사름 잘 된다.
(제주산은 악산이라서 악한 사람 잘 된다)
- 89 조강매기 부비듯.
(조의 껍질 비비듯)
- 90 X 낸 놈이 칼을 찬다.
(발가벗은 놈이 칼을 찬다)
- 91 췌이 아니민 궤 풀을 무사 보리.
(쥐가 아니면 고양이를 왜 볼까)
- 92 지꾸는 갠 줄곡, 먹는 갠 슬친다.
(짓는 개는 살이 빠지고, 먹는 개는 살이 찐다)
- 93 죽은 낭 아래 살 낭 잇저.
(시들어 죽은 나무 아래 살 나무가 있다)
- 94 준 췌 폰리 췌다.
(살이 빠진 소에 파리가 모인다)
- 95 지름 줄 씨앗 웃다.
(기름 줄 첩 없다)

(츠)

96 초 정월 벚름쌀에 검은 암쇄 쌀 오그라 진다.

(초 정월 바람결에 암소 쌀이 흰다)

97 초신착도 지름 불량 구민 먹나.

(짚신도 기름 바르고 구면 먹는다)

98 촌 부쟁 밭 부재여.

(시골 부자는 밭 부자다)

99 체 불리는 부재 웃다.

(겨를 바람에 불리는 부자 없다)

(ㅋ)

100 코 붙은 애기 손엿거 툭아 먹지 말라.

(코 묻은 아기 손엿것은 뺏아 먹지 말라)

○ 큰 낭귀 덕은 웃어도, 큰 어른 덕은 싣나.

(큰 나무의 덕은 없어도, 큰 어른 덕은 있다)

○ 허벽 진 이 허이 허난, 팽 진 이도 허이 한다.

(물동이 짙어진 이 호이하니, 병 짙어진 이도 호이 한다)

(ㅎ)

○ 하나 트라지민 유숫 밧디 트라진다.

(하나 비틀면 여섯 군데 비틀어 진다)

○ 허던 광질도 돈 주켤 허민 안 한다.

(하던 술 주정도 돈 주겠다 하면 안 한다)

○ 하루 허서허젠 코 가끈다.

(하루 사치하려고 몸 치장한다)

○ 흘에빈 웨문에 웨문 도절귀, 흘어멍은 정동화리가 아홉.

(흘아버는 외문에 외문 들찌귀, 흘어미는 청동화로가 아홉)